

## 退溪의 碣文修辭에 대하여\*\*

李 鍾 虎\*

### • 目 次 •

I. 머리말	IV. 先府君 李埴 碣文事
II. 秋巒 鄭之雲 碣文事	V. 郡守 宋世忠 碣文事
III. 聽松 成守琛 碣文事	VI. 마무리

### I. 머리말

“학자는 문장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sup>1)</sup>

\* 안동대 한문학과 교수

\*\*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퇴계학』 제3호(1991) 게재논문

1) 『言行錄』 권5, 『類編』, 『增補退溪全書』4(성대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102-103쪽, “學者不可不解文章.”

사상과 감정의 표출-전달과 감상-수용은 문장의 기본 기능이다. 인용문에서 퇴계가 말한 ‘문장’은 주로 ‘표출-전달’의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사용된 것이다. <각주에서는 편집의 편의상 역문이나 참조자료의 출처만을 밝히고 원문인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원문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는 예외로 한다. 인용문의 출처 제시 방식은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 예:“『답정자중』, 전서 2, 343쪽(속내집, 권35, 장3좌3-장4우2)”전서’는 정문연 발행 『陶山全書』(寫本)을 줄여서 쓴 것이고 ‘2’는 전 4책 중 제 2책을 가리킨다. ‘342쪽’은 동서의 페이지이며 『답정자중』은 해당 인용문의 제목을 말한다. 괄호로 묶은 부분은 『도산전서』의 편차에 의거해서 출처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장3좌3-장4우2’는 ‘續內集 卷35 第 3張의 왼쪽 면 第 3行 부터 第 4張 오른쪽 면 第 2行까지’라는 표현이다. 소책외의 인용도 이와 동일하다.>

퇴계의 시대, 곧 조선 16세기 지식인들은 ‘학(學)’하는 대상으로서의 ‘업(業)’을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인식했다. 과거(科擧)－사장(詞章)－의리(義理). 그리고 이 세 가지 학적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대적인 가치평가를 내렸다. 의리>사장>과거. 하지만 항상 가치평가의 우선 순위는 의리학(義理學; 道學·性理學)에 두어졌다.<sup>2)</sup> 이렇듯 학적 대상의 구분은 필연적으로 차별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분’이 곧 각 분야의 ‘독자적 논리’를 확보하도록 작용하지는 못하였다.

요컨대, 퇴계의 시대에는 여전히 학적 대상에 대한 상대적 편견이 철저한 분화를 가로 막고 있었고 그에 따라 전문화한 일정 집단의 출현을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형편이었다.<sup>3)</sup>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시의 문인 지식층에게는 과거→사장→의리의 단계별 학습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하나의 지식인에게 관인→문인→학자로의 이행기적 명칭이 부여될 수 있었다. 물론 퇴계의 시대에 와서 역사적으로 특이한 명칭이 대두된 것은 사실이다. ‘사림’과 ‘처사’가 바로 그것이다. 사림은 당시의 기득 계층이었던 훈구·척신계열에 상대하여 세력화하기 시작한 양반층을 말한다. 그러한 사림층에서 관인·문인과 ‘학자’를 구별할 때, ‘처사’가 등장한다.<sup>4)</sup> 처사는 관직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사장’학도 외면한 채

2) 이러한 관점은 16세기 문인들의 여러 문집에서 산견된다. 성리학이 교조화되 가던 17세기에 가면 부분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만 종래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3) 학적 대상의 분화와 전문화한 일정 집단의 출현은 ‘사장’과 ‘의리’의 분야에 한정한다면, 정암 조광조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립’과 ‘투쟁’의 현실적 논리 속에서 등장하는 ‘사장’이요 ‘의리’였지 학문적 관심에서 출발한 분화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결국 사대부 계층의 끊임없는 자기 분열의 과정이 진전해감에 따라 학적 대상의 분화와 상대 독립성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로 본다면, 퇴계의 시대는 일정 정도 ‘사대부층의 자기 분열’이 실현되던 시기로 인정할 수 있기에 학문적 관심도 이전 단계 보다 점차로 심화되어 갔다고 믿어진다. 조선 후기 실학과 시대가 사대부층의 가속화한 자기 분열의 과정 뒤에 열리기 시작한 상황과 견주어 보면 이같은 논리가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오로지 개인의 '심성수양'에 주력한다. 처음 부터 과거→사장→의리의 계기적 혹은 이행적 학습을 거부하고 바로 '의리'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처사'의 특징이요 미덕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처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사장'만을 업으로 하는 전문화한 '문인'의 존재는 가능한가? 조선 중기라는 역사적 조건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같은 물음에 긍정적으로 회답하기 어렵다. '사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당시의 문인은 거의 모두 관인층에 속해 있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서얼출신이거나 관인층으로 진출할 수 없었던 지식인 중에 극소수 사장취향의 문인들을 거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른바 제도권으로부터 소외당한 '방외(方外)'적인 문인들이 이에 속한다.

퇴계는 사림층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처사'적인 학자도 아니고 '방외'적인 문인도 아니다. 과거→사장→의리의 단계별 학습을 통하여 관인→문인→학자로의 계기적 행로를 걸었다. 다만 그의 의식의 한 모퉁이에는 '의리'의 문제에 정열을 쏟고픈 욕구가 온존했다. 그리고 그러한 욕구는 만년에 올수록 더욱 강한 집념으로 응결되어 갔다. 그래서 그는 '퇴계 이황은 학자이다'라고 불러주기를 원했다.

학자는 문장가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퇴계는 학자라고 해서 문장을 몰라도 그만이라는 생각에는 반대한다. 또한 문장 그 자체를 위해 문장을 알아야 한다는 견해도 반대했다. 그렇다면 왜 문장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 것일까? 이른바, 깨닫고자 하는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써(因文入道) 문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부가 그물의 조직과 사용 방법을 익히는 이유와 같다. 어부의 목적은 보다 많은 고기를 낚아 올리는 데 있다. 그러나 고기를 잡고나면 그물(통발)은 잊어야 한다(得魚忘筌). 그물은 어획량을 보장해 줄 수 있는

---

4) 지식인의 취향에 따라 관료적 문인, 학자적 문인, 처사적 문인, 방외적 문인 등으로 세분화도 가능하다.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그런데 흥미있는 일은 분업화 되어 있지 않은 시대에 있어서 그물의 제작기술을 알고 있던 사람은 어부뿐이었다. 따로 어구만을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퇴계의 시대는 앞서 말했듯이 문인 지식층의 분화가 진행되어 가는 도중에 있었다. 이러한 이행기적 양상은 퇴계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퇴계는 자기의 본색을 ‘의리’에 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과 ‘과거’를 전혀 외면하지는 않았다. 어쩌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았다고 볼 수도 있다. 더 솔직히 말한다면 그는 이 두 가지 분야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일정한 자기 학습을 경주하였다.<sup>5)</sup> 특히 그는 고전적인 산문, 즉 고문(古文)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어록(語錄)은 고문이 아니다”하고 말할 정도였다. ‘어록’이란 성리학자들이 제자들과 일정한 학문적 관심사에 대해 토론한 내용을 적은 글이다.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퇴계는 ‘도를 후세에 전하는 문제(傳道)와 ‘후인들이 이를 학습하는 문제(誦習)’를 모두 생각하였다.<sup>6)</sup>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비유컨대 ‘최선의 그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선의 그물이란 ‘가장 효과적인 언어’를 말한다.

‘최선의 그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제된 기술’이 요구된다. 퇴계는 이를 문장에 있어 ‘수사(修辭)’라고 믿었다. 수사를 통해 ‘질(質)’과 ‘문(文)’을 중화해야 한다고 했다.<sup>7)</sup> ‘질’은 가공하지 않은 바탕, 원자재이다. 여기에 몇 차례의 재단과 정련의 공정을 거쳐 하나의 그릇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수사는 퇴계의 문장관과 도학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같은 문제의식 아래에서 그가 생각한 수사의 내용과 양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퇴계가 남긴 모든 저작을 대상으로 논의해가기에는 필자의 공부가 부족하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비지문자(碑誌

5) 拙稿: 「退溪美學의 基本 性格(下)」, (안동문화 제10집, 154-161쪽,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1989)을 참조.

6) 같은 글, 같은 곳을 참조.

7) 같은 글, 같은 곳을 참조.

文字) 찬술과정을 이해하고 그 속에 나타난 수사 양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를 국한하고자 한다.<sup>8)</sup> 가능하면 어느 정도 그 윤곽이 시야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II. 秋巒 鄭之雲 碣文事

추만 정지운(1509~1561)은 경기도 고양에 거주하면서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을 사사하여 성리학을 연구하였으며, 유명한 「천명도설(天命圖說)」을 저술하여 퇴계의 칭송을 받은 바 있다.

1561년 추만이 죽자, 그의 처남인 안홍(安鴻)이 갈문사를 도모했던 것 같다.<sup>9)</sup> 추만갈문을 청탁받은 퇴계는 비교적 다른 경우보다 이를 쉽게 수용했다.<sup>10)</sup> 그러나 찬술과정에 들어가서는 다른 예와 같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sup>11)</sup>

퇴계는 찬술을 부탁받고 나서 오랜 시간이 경과하도록 제대로 갈문을 기초하지 못하였다.<sup>12)</sup> 왜냐하면 갈문의 내용을 구상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갈문 구상에 심혈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퇴계는 찬술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기 앞에 놓여 있음을 알았

8) 필자는 근년에 들어와 퇴계의 문학세계를 검토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퇴계와 그의 문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조선조 사대부 문학의 기본 틀을 터득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의 비지문자만을 다룬 필자의 논고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退溪의 碑誌文字論 研究序說」(퇴계학 제2집, 127-163쪽,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1990), 나. 「朝鮮朝 士大夫層의 碑誌文字論」(교남한문학 제3집, 3-59쪽 중 'II. 퇴계의 비지문자평', 교남한문학회, 1990), 다. 「退溪의 碑文不作論」(한문교육연구제5호, 199-213쪽, 한국한문교육연구회, 1991).

9) 「答鄭子中」, 전서2, 335쪽(속내집, 권34, 장83좌4-6).

10) 같은 글, 같은 곳.

11) 비지문자 찬술에 대한 '신중한 태도'는 퇴계로 하여금 한 편의 '神道碑文'도 남기지 못하도록 만들었다.(拙稿:「退溪의 碑文不作論」을 참조)

12) 「與鄭子中」, 전서2, 337쪽(속내집, 권34, 장86좌3-4).

다. 퇴계는 이미 여러 집안들로부터 수차에 걸쳐 갈문찬술을 청탁받은 바 있으나, 이를 완곡하게 거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만의 갈문만을 지어주었을 경우, 그에게 쏟아질 비난과 불만의 화살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퇴계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던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sup>13)</sup> 그러나 그 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문봉(文峰) 정유일(鄭惟一)이 추만 갈문사의 주된 거간역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퇴계는 이 일로 그와 더불어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 받았다. 퇴계가 문봉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을 보면, 그의 또다른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조사(措辭)에 매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니, 그 사실을 가리게 되면(掩實) 추만을 제대로 생각하는 바가 못되고, 사실대로 기록하면(紀實) 또한 크게 남의 마음에 차지 않게 될 것이라. 양자 사이에 황이 처신하기 어려움이 다른 사람의 경우보다 더욱 심하다. 이 때문에 고민하다 지금까지 질질 끌게 된 것이네.<sup>14)</sup>

퇴계는 피전자가 가까운 친구일 때, 갈문찬술이 매우 어렵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그 이유로 퇴계는 찬술의 실제 단계에 있어 ‘조사(措辭)’의 어려움을 들었다. ‘조사’란 무엇을 말하는가? 연속하는 문장 속에서 어떠한 낱말을 어떠한 곳에 놓아야 적절한 표현이 되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는 일이 곧 ‘조사’이다. 그러므로 ‘조사’는 글쓰는 이가 일정한 주제의식 아래 전편의 결구를 엮어내려 갈 때, 가장 직접적으로 주제가 암시·표출되는 세부단위가 된다. 따라서 일련의 ‘조사’과정을 통해 독자는 글쓰는 이의 문체, 곧 개성을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상당 부분 격려회한 문장, 예컨대 비지문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13) 「與鄭子中」, 전서2, 337쪽(속내집, 권34, 장87우7-좌1).

「答鄭子中」, 전서2, 337쪽(속내집, 권34, 장87좌10-장88우3).

14) 「答鄭子中」, 전서2, 338쪽(속내집, 권34, 장88우3-6): “只於措辭有甚難者,爲其掩實卽非所以待秋辭也, 紀實卽又大有未滿人意, 兩者之間, 自澁處之之難, 更有甚於他人者. 以此益難, 遲遲至此.”

‘조사’가 쉽지 않다. 서술의 매 단계마다 이미 주어져 있는 일정한 격례(格例)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찬술자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격례에 유의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에 적합한 새로운 표현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찬술자의 의도가 ‘조사’로 실천될 때, 본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 3자에게 곡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흔히 말하는 “어’다르고 ‘아’다르다”는 식의 상반된 생각들을 결과하는 예가 종종 있다. 때문에 비지문 찬술에 있어 ‘수사(修辭)’는 어느 다른 요소보다도 강조되는 것이다. 퇴계가 말한 ‘조사’도 따지고 보면 이 ‘수사’와 같은 의미를 지닌 용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퇴계가 특히 고민한 것은 ‘조사’함에 있어 ‘엄실(掩實)’과 ‘기실(紀實)’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퇴계는 비지문자의 기본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던 분이였다. 예컨대 피전자의 선행과 덕을 칭술하여 후손으로 하여금 유감이 없도록 하는 일이 비지문자의 주된 기능임을 그는 되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했을 때, 차후로 일어날 불의의 사태를 그는 충분히 예감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진실된 표현이라 하더라도 갈문을 요구한 후손들에게 항상 긍정적으로 수용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실, 퇴계는 추만의 행적을 비교적 소상히 인지하고 있던 터였다. 그러므로 그로서는 안흥이 찬한 행장과 사암(思庵) 박순(朴淳)이 찬한 묘지명에서 보이지 않았던 감추어진 사실 부분을 갈문으로 기술할 수 있는 처지였다. 더구나 지우로서 추만을 떳떳하게 대우하는 길이 사실을 사실대로 기술하는 일이라고 퇴계는 믿었던 것이다. 이렇듯 퇴계는 피전자인 추만과 청탁자인 후손, 양자에게 만족을 주는 갈문을 찬술하기 위해 갈등과 고민을 거듭했던 것이다.

이 양자에게 만족을 주는 방법(兩全之道)을 강구하기 위해, 퇴계는 갈문사의 거간을 맡았던 문봉 정유일을 활용하기로 했다. 문봉으로 하

여금 갈문의 초를 잡도록 하여, 초가 이루어지면 서로 의론하여 하나 하나 정정(訂定)해 가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래서 퇴계는 문봉이 갈문 초를 잡을 때, “삼가해서 지나치게 칭양하는 말을 하지 말고, 또한 착실히 그 선한 행실을 없애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당부를 곁들이기 까지 했다.<sup>15)</sup>

그러나 문봉으로서는 퇴계의 요청을 선뜻 수용하기가 어려웠다. 퇴계는 결국 문봉에게 더 이상 강요하는 일이 무리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갈문의 초를 잡아 나가기로 마음을 굳힌다.<sup>16)</sup> 다만 초한 갈문을 정정해 가는 이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퇴계가 갈문의 초를 잡고 문봉과 상의하여 정정해가는 방식으로 선회하였는 바, 기초(起草)하는 주체가 문봉에서 퇴계로 바뀌었을 뿐이다. 퇴계와 문봉 사이에 서한이 왕복됨으로써 몇 차례의 수정이 가해졌다. 대체로 퇴계가 초한 갈문에 큰 손질은 가해지지 않았다. 지엽에 있어 한 두 부분, 문봉과의 토론을 거쳐 수정한 흔적이 엿보일 뿐이다.

그 한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갈문 속에 “그 세상에서 이곳 저곳을 왕래하며 무덤에서 젓밥을 구걸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다고 하겠는가?(其視世之營營乞糶者何如哉)”하는 대목의 문자가 국축(局促)함을 면할 수 없었으니, 간결하게 하고자 번잡함을 제거했기에(欲簡去繁) 글이 마침내 이렇게 되었기 때 문이네. 만일 지금 몇 자를 첨가하여 고치고자 해서, “그 세상에서 (이곳 저곳을 왕래하며) 무덤에서 젓밥을 구걸함으로써 배부르기를 구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다고 하겠는가?(其視世之乞糶而求饜足者何如哉)”로 한다면 조금 나을 듯한데, 어떻겠나?<sup>17)</sup>

인용문을 통해 우리는 퇴계의 갈문수사에 있어 하나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간결함을 위주로 하되 문장이 국축해서는 안 된

15) 『與鄭子中』, 전서2, 337쪽(숙내집, 권34, 장87우10-좌7).

16) 『答鄭子中』, 전서2, 338쪽(숙내집, 권34, 장88우7-10).

17) 『答鄭子中』, 전서2, 343쪽(숙내집, 권35, 장4좌1-5)



다.’는 원칙이다. ‘국축’이란 규모가 너무 줄어 들어 지나치게 웅졸한 모양이 된 경우에 쓰이는 표현이다. 말하자면 퇴계의 사유체계가 지향하는 ‘중용(中庸, 혹은 中道)’의 정신이 갈문수사에도 침투되고 있다. 일찍이 그는 남명 조식의 문장에 대해 ‘상기호이(尙奇好異)’에 흘렀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의 판단으로는 중도로써 포함되지 않은 ‘기(奇)’와 ‘이(異)’를 수용하기 어려웠다.<sup>18)</sup> 더 쉽게 말한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적당히 먹어야지 지나치면 음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갈문의 수사는 간결함을 위주로 하는 것이 마땅하나, 본래의 의도와 괴리된 지나친 간결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추만의 갈문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퇴계의 손에서 완성을 본다. 그러나 퇴계는 완성된 갈문을 보내는 순간에도 찬술한 사실이 남에게 전파되는 것을 꺼렸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미 재상 집안으로부터 서너 건의 비문을 청탁받아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추만의 갈문은 찬술 해주면서 나머지 청탁을 거절할 경우 청탁자들의 원망과 분노를 풀 길이 어려웠을 것이다.<sup>19)</sup> 그의 생각으로는 ‘비문’과 ‘갈문’은 규모의 대소에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찬술자의 사회적 위치도 달라야 했다. 이 같은 변별적 인식이 일반인들에게는 선명하지 못했다. 퇴계는 늘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다.<sup>20)</sup>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되도록이면 ‘갈문’이라 하더라도 찬술하지 않거나, 찬술했다 해도 그 사실의 전파를 막고 비밀의 유지에 힘쓰는 것 뿐이었다. 예컨대, 그가 종종 “갈문을 널리 남에게 퍼뜨리지 않는 일”에 유의하라고 문봉에게 당부한 까닭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sup>21)</sup>

18) 拙稿: 「退溪 美意識의 形成原理」(『古典詩歌의 理念과 表象』, 500쪽(林下 崔珍源博士 停年紀念論叢, 논총간행위원회, 1991)을 참조.

19) 「與鄭子中」, 전서2, 340쪽(속내집, 권34, 장93좌2-6).

20) 같은 글, 같은 곳: “碑碣之分, 何能戶曉耶.”

21) 「答鄭子中」, 전서2, 343쪽(속내집, 권35, 장4좌6): “碣文勿廣事留意, 深望深望.”

### Ⅲ. 聽松 成守琛 礪文事

1564년 청송 성수침(1493~1564)이 죽자, 청송의 아들 우계(牛溪) 성훈(成渾, 1535~1598)이 퇴계에게 선인의 묘지명을 청했다. 퇴계는 같은 해에 정존재(靜存齋) 이담(李湛)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답한 둔세의 선비로서 일생을 마친 청송을 말세에 보기 드문 분이라고 칭송하고 그의 죽음을 애석히 여긴 바 있다. 그리고 나서 같은 편지글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으로서는 청송의 지문찬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나타냈다.<sup>22)</sup> 또 같은 해에 잠재(潛齋) 김취려(金就礪)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예전 송강(松岡) 조사수(趙士秀)의 비문사를 예로 들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퇴계는 송강의 아들이 불원천리하고 그에게 찾아와 비문찬술을 부탁하였으나, 끝내 거절하고 부응해 주지 않은 바 있다. 그래서 퇴계는 잠재에게 청송의 아들이 아무리 자신을 찾아온다 해도 전례와 같이 부응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우계에게 이같은 저간의 사정을 잘 말해 달라고 당부하였다.<sup>23)</sup>

청송지문사에 거간역을 맡았던 이는 율곡 이이(1536~1584)였다. 율곡은 청송의 행장을 찬술한 바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지문사에 깊숙이 관계하였다. 퇴계는 율곡으로부터, 역시 청송지문 찬술을 권유받았다. 율곡은 퇴계야말로 청송의 지문을 찬술하는 데 있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 이유를 퇴계의 입을 빌어 설명해 보면, 퇴계가 현재 재야에 은거하고 있으므로 청송같은 이의 은거군자상(隱居君子像)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여긴 때문이다.<sup>24)</sup> 그러나 퇴계는 찬술주체에 있어 재조(在朝)·재야(在野)의 구분은 별로 의미가 없으며, 단지 찬술자가 지닌 풍의(風義)와 문장역량이 중요하다고 율곡에게 말하였다. 이어서 그는 청송지문을 감당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22) 「答李仲久」, 전서1, 316쪽(속내집, 권12, 장10우1-4).

23) 「答金而精」, 전서2, 460쪽(속내집, 권41, 장2우6-좌3).

24) 「答李叔獻」, 전서3, 506쪽(속집, 권3, 장26우5-7).

를 덧붙였다. 첫째는 문장 숨씨가 졸렬한 것, 둘째는 움직하면 곧 남에게 비방을 받는 것, 셋째는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일 등이다.<sup>25)</sup> 특히 그는 ‘이 아무개가 누구의 갈문을 지었다’하는 소문이 퍼지기를 극히 염려하였다. 왜냐하면 소문이 퍼지게 되면 여러 가지로 편치 않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었다.<sup>26)</sup> 퇴계는 늘상 이를 걱정하여 갈문사에 있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앞서 살펴 본 추만의 갈문사에서 퇴계는 문봉에게 자신이 갈문을 찬술한 사실을 널리 알리지 말 것(礪文勿廣事)을 거듭 당부한 바 있다.

결국 청송의 지문은 퇴계의 손에서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훗날 고봉 기대승의 손을 빌리게 된다. 그렇지만 청송의 비지문 찬술과 관련하여 퇴계도 일정한 자기 몫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1570년 청송의 묘갈명을 찬술하였기 때문이다. 퇴계가 청송갈문을 찬술하기까지는 역시 우계의 정성어린 청탁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sup>27)</sup> 또한 이 갈문사에 잠재와 율곡이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

퇴계는 추만갈문의 찬술 방식과 같이 우선 자신이 초를 잡고 나서, 우계, 율곡, ‘잠재 등과 서한을 왕복함으로써 정정해 나갔다. 정정과 운문의 과정에서 대두하였던 대목은 ‘청송이 명철보신하려는 의지가 있었는가, 아니면 없었는가?’하는 것이었다. 먼저 우계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을 살펴 보기로 한다.

이른 바, “기미를 살펴 명철하게 처신하였다(見幾明哲)”는 등의 말에 대해 공과 숙헌(율곡)이 힘써 분석하고 따졌으니, “화를 피하려고 함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여겨, 그렇기 때문에 괘림종의 행실도 높이 사기에는 부족하다(以要避禍爲非正法郭林宗爲不足尙)”하고 생각했기 때문인가? 내 생각으로는 이 일은 경우에 따라 사람마다 같지 않으므로, 올바르게 올바르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망령된 생각인지는

25) 같은 글, 같은 곳(우7-좌2).

26) 같은 글, 같은 곳(좌2-8).

27) 『答成浩原』, 전서1, 363쪽(숙내집, 권14, 장26우10-좌5).

모르나 기묘년 간의 일은 선공이 처신한 바가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함에 무슨 병집이 있겠는가? 그런대도 결코 말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가?<sup>28)</sup>

요컨대, 기묘사화가 일어났을 때 청송이 보여 준 처세방식이 과연 정도를 따른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었던 것이다. 우계와 율곡은 화가 닳았을 때 이를 구차히 피하는 것은 정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퇴계는 이상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꼭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했다. 인용문에서 거론된 곽태(郭泰, 後漢 사람으로 字는 林宗)는 당대에 유명한 학자로 그에게는 수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는 중국에 있는 인사들의 인물평을 즐겨 했지만 결코 위언격론(危言激論)을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혼탁한 시대를 살았지만 남으로부터 원망이나 화환(怨禍)을 받지 않았다. 우계는 저와 같은 곽태의 처신을 못마땅하게 여겨 평가하려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곽태의 태도는 시비 곡직을 직절하게 분별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명철보신에 안주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퇴계가 청송의 처신을 명철보신으로 본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퇴계가 잠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근거해 보면, 우계는 청송이 명철보신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믿고 있다. 우계는 청송이 벼슬하지 않은 이유가 다만 병이 많아 출사가 어려웠던 데에 있었기에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던 정쟁과는 무관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비록 기묘사화가 일어났을지라도 그 화환(禍患)이 청송에게 미칠 수 없었다는 것이다.<sup>29)</sup> 이로 보면, 우계가 ‘명철보신’이란 표현을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는 자신의 선인인 청송에게 그와 같은 표현이 쓰여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때문에 명철보신조차 할 수 없었던 청송의 신병을 들어 말함으로써 퇴계의 수사방식을 환기시켜 ‘명철보신’이 잘못된 표현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28) 「答成浩原」, 전서1, 364쪽(숙내집, 권14, 장27우8-좌2).

29) 「答金而精」, 전서2, 510쪽(숙내집, 권43, 장32우7-좌2).

그러나 퇴계로서는 우계의 이같은 정정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처세’의 문제는 바로 갈문에서 퇴계가 피전자인 청송의 형상을 특징지우려고 할 때 중요한 관절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퇴계는 갈문의 서문 뿐 아니라 명문에까지 대폭 손질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청탁자인 우계의 요청을 소홀히 여길 수도 없었다. 그 사이에서 퇴계의 고민은 더욱 증폭되어 갔다. 고민 끝에 퇴계는 다음과 같이 잡재 김취려에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명문 중에, “봉이 날다가 내려가지 못하네(鳳飛不下)” 등 몇 구절을 고쳤다. 그리고 나서 반복하여 읽어 보니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이 한 개의 의사(意思)와 연관되는 것이 많았다. 예컨대, 이른바 “지나간 고려 시대에도 이 나라에 태어난 선비들이 많았도다(往在前朝多士生國)” 일절과 “한번 높이 나는 기러기를(속세를 떠난 고상한 선비, 곧 청송을 비유) 그물질 해 가자 청탁이 섞이어 버렸도다(一網冥鴻濁清淵襲)” 등의 말은 모두 성군(成君; 성혼)이 대단히 싫어 하는 말이었다. 마땅히 고쳐야 할 곳이 있으나, 그 때엔 고쳐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또 나는 예부터 고상하게 숨는 선비(高隱之士)의 의사는 본래 모두 이와 같았을 것이라 여겼다. 만일 단지 병 때문에 나가지 못해 세상과는 무관하고서도 고상하게 숨은 선비라는 명칭을 얻을 수 있다면, 어찌하여 세상에서 ‘고은지사’를 찾아 보기 드물도록 하여 귀하게 여기게 할 수 있겠는가? 만일 이같은 말들을 다 제거해서 평평하게 만들어 병 때문에 나가지 못한 것으로 해 놓으면, 또한 선생의 온축(蘊蓄)이 이에 그쳐버리게 되거나 앓을까 걱정이 된다.<sup>30)</sup>

퇴계가 말한 ‘한 개의 의사’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고상하게 숨은 선비의 의사라 할 수 있다. ‘의사(意思)’란 성리학적 논리로 재해석해 보면, 마음이 향해 가는 방향이라 풀이할 수 있다. 과연 고상하게 숨었다고 하는 청송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서 운동해가고 있었는가? 퇴

---

30) 같은 글, 같은 곳(좌2-10).

계는 청송이 늘 자기 마음속에 고상하게 숨겠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고 믿었다. 우계는 그같은 견해에 동의하긴 했으나, 그것이 사화라고 하는 긴박한 상황과 대면하게 되었을 때, 명철보신의 방식으로 구체화 된다고는 보지 않았다. 퇴계의 견해는 달랐다. 단순하게 ‘질병’이라고 하는 외부적 조건에 의해 현실참여 의지가 제약당하여 생의 방향에 일정한 굴절을 보인 결과로써 청송의 ‘고은(高隱)’을 설명하는 방식에 반대한 것이다. 퇴계는 우계의 논리를 수용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고은지사’의 의사와 청송의 속깊은 생각 사이에 뭔가 괴리가 생길 것이라 판단했다.

아마도 퇴계는 이렇듯 양립할 수 없는 상충된 견해를 나름대로 보합하고자 노력한 듯하다. 그러나 끝내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지금 전해지는 청송갈문을 검토해 보면 그같은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나는 일찍이 보건대, 예로부터 고상한 선비가 숨고 나오지 않아 편벽하여 중도를 잃은 이가 많았으나, 선생의 사람됨은 숨을 줄도 알았고 나올 줄도 알아 편벽되지 않고 중도를 얻었다. 그 벼슬하지 않음은 (임금과 신하의) 의리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때가 마침 그러했고(時適然矣), 즐거워 하는 바가 숨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처신함에) 어찌 편벽한 바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선생이 이미 이에 대해 스스로 말한 적이 없었으니 다른 사람이 능히 알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혹자는 이르기를, ‘선생이 숨은 것은 병이 많고 스스로 겸손하여 물러갔을 뿐이다’고 한다. 아아! 이 말이 죽히 선생의 깊은 속마음을 안 것이라 하겠는가?<sup>31)</sup>

‘혹자’는 우계를 지칭하는 듯하다. 이렇듯 퇴계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면서 우계의 견해도 일부 참작한 듯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아마도 이 ‘명철보신’여부의 문제는 마지막 탈고의 단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퇴계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잠재에게 보낸 편지

31) 『聽松成先生墓碣銘』, 전서3, 362쪽(속내집, 권64, 장33좌4-10).

속에서, ‘우계와의 갈등부분이 해소되기 어렵다면, 잠시 놓아 두고 곰곰히 생각해 보아서 끝내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른 사람에게 갈문을 구하라고 청하겠다.’고 말했다.<sup>32)</sup> 심지어 율곡에게는, ‘결국은 쓰이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러쿵 저러쿵 갈문에 대해 변명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sup>33)</sup>

퇴계는 내심으로 일단 완성된 갈문을 청탁자의 요청에 따라 이리 저리 고치는 것을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청탁자의 욕구에 부응해 간다면 결과적으로 갈문을 억지로 손질한 흔적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릇 문장이란 천성(天成)으로 이루어진 것을 귀하게 여긴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같다. 퇴계는 우계의 주장이 수용될 수 없는 논리를 ‘고은지사’의 개념을 정의해 나감으로써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같은 문장관이 퇴계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어 쉽사리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못하도록 작용하고 있다. 퇴계의 ‘문장관’이 그의 ‘처세관’과 더불어 청송갈문 찬술에 주요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成章)하고 나서 뒤미처 고친다면, 이는 비유컨대 솜씨없는 목수가 집을 짓고 나서 남들이 병집있는 곳을 지적할 때마다 도끼와 자귀를 대어 그들의 말에 부응해 주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면 그 깎고 파낸 흔적이 남게 되리니, 그것이 어찌 법도에 맞겠으며 남의 견해도 부합하겠는가? 아마도 형편없는 집이 되버릴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고치고자 한다면, 아마도 피멍든 손과 땀에 젖은 얼굴로 깎고 다듬다가 더욱 병집이 생길까 두렵다.<sup>34)</sup>

다듬은 흔적이 남게 될 병집을 우려한 퇴계는 자신의 갈문을 쓰든 안

32) 「答金而精」, 전서2, 510쪽-511쪽(속내집, 권43, 장32좌10-장33우3).

33) 「答李叔獻」, 전서1, 399쪽-400쪽(속내집, 권16, 장28좌10-장29우1).

34) 「答成浩原」, 전서1, 364쪽(속내집, 권14, 장27우3-6): “既成追改, 比如拙匠作室之後, 因人指出病處, 從而加斧斤以副人言. 其斲鑿之痕, 豈能中法度合人見耶? 其爲弊屋必矣. 況若欲改於立談之頃, 其血指汗顏之斲, 尤恐生病.”

쓰든 일단 우계에게 보내 주려고 했다. 보내면서 그는 예의 갈문물광사(碣文勿廣事)를 잊지 않고 간절히 당부하였던 것이다.<sup>35)</sup>

#### IV. 先府君 李植 碣文事

퇴계는 그가 죽기 한 해 전인 1569년, 선고(先考; 李植, 1463~1502)의 갈문을 고봉 기대승에게 청한다. 사실 그는 그의 증형인 온계가 귀해졌기 때문에 선고가 가선대부로 추증되었을 당시에 이미 묘갈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돌이 자연풍화 현상에 따라 결이 갈라터져 다시 고쳐 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중간에 온계가 화를 입어 죽게 되자, 그 일이 그만 천연되고 만 것이다. 또한 퇴계 역시 벼슬이 높아짐에 따라 선고의 증직이 더해져 더욱 더 개석(改石)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었다. 마침내 다른 돌을 사 놓고 다가오는 가을경에 각석(刻石)하리라 마음먹기에 이른다.<sup>36)</sup>

이전의 갈문은 주자가례에 의거해 대략 향계(鄉系) 등을 간략히 기록하였을 뿐 명문은 빠져 있었다. 퇴계는 이번 개석사(改石事)를 계기로 보다 완전한 묘갈명을 얻고 싶었다. 드디어 고봉을 당대의 대군자라고 치켜 올리면서 자신이 찬한 선고행장을 동봉하여 편지로써 그에게 1569년 6월 7일 갈문을 청한다.<sup>37)</sup>

그는 자신이 찬한 선고행장이 선고의 언행과 사실이 소략한 것을 늘

35) 같은 글, 같은 곳(우7-8).

36) 「令前上狀 奇承旨宅」, 『高峯集』(성대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220쪽(往復書, 권3, 장9우9-장10우10)

고봉 기대승과 주고 받은 편지의 인용은 편의상 『고봉집』에 수록된 ‘고봉퇴계 왕복서’에 의존하기로 한다. 인용문의 제목은 편지에 필사된 원형 그대로를 따서 쓰기로 한다. 이 왕복서는 유명한 ‘4단 7정’ 논쟁에 버금갈 만한 분량을 하고 있으므로 퇴계와 고봉의 교류를 이해하는데 있어 귀중한 자료로 보인다.

37) 같은 글, 같은 곳(장9좌8-10).



안타깝게 여기고 있던 터였다. 그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1502년에 선고가 타개했고, 퇴계는 1501년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선고를 잃었기에 선고의 언행을 문견할 틈이 없었고, 더구나 선고 재세시에 교유했던 분들조차 세상에 생존해 있지 않아 탐문해 볼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선고의 행적은 소루하고 선조들의 사적과 자손들의 계통부분만이 상세하게 기록될 수 밖에 없었다.<sup>38)</sup>

기실 퇴계는 그가 전개한 비지문자론에서 ‘행장이 부실하면 비지를 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사실이 있다.<sup>39)</sup> 이 원칙대로라면 퇴계가 선고의 소략한 행적을 기록한 행장을 가지고 고봉에게 갈문을 청한 것은 자기모순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퇴계 역시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행적이 후세에 전해지지 못할까 근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효자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청탁자인 피전자의 후손 입장에 선 퇴계를 우리는 새롭게 만나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퇴계가 고봉에게 청탁하고 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한 편의 갈문이 완성되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해 보기로 한다.

같은 해 6월 8일, 고봉은 퇴계의 청을 받고 답한 편지에서, “처음엔 사양할 생각이었으나 퇴계가 자신을 그토록 아껴주었기에 의리상 사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고봉은 수 일 안으로 초를 잡아 모양이 갖추어지면 연이어 선사(繕寫)하여 퇴계에게 품정(稟訂)할 생각이었다.<sup>40)</sup>

6월 27일 보낸 편지에서 퇴계는 고봉이 흔쾌히 자신의 청탁을 수락해 준 데 대해 최고의 사의를 표하고 있다.<sup>41)</sup> 7월 21일, 고봉은 갈문을 찬하여 퇴계에게 올리면서 모양이 제대로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38) 같은 글, 같은 곳(장9좌10-장10우7).

39) 줄고: 「퇴계의 비문부작론」, 『한문교육연구』 5호, 205쪽-206쪽을 참조.

40) 「先生前上謝狀 判府事宅」, 『고봉집』, 221쪽(장12우4-좌2).

41) 「明彦令前拜復 奇承旨侍史」, 『고봉집』, 223쪽(장15우7-10).

하면서 감재(鑑裁)해 주기를 청한다.<sup>42)</sup> 실로 청탁을 받은 지 한 달 보름만에 갈문의 기초가 끝난 셈이다. 그런데 고봉이 찬한 갈문이 퇴계의 손에 들어 오기까지는 다소의 시일이 걸렸던 것 같다. 왜냐하면, 고봉은 당시에 성균관 대사성으로 서울에 있었을 뿐 아니라, 보내는 문건이 퇴계 집안으로 보아서 중대한 문자였기 때문이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그와 같은 일을 잘 처리할 사람을 물색하다 보니 자연 한달 보름 가까이 소요되었던 것이다.<sup>43)</sup>

9월 그믐, 퇴계는 고봉에게 보낸 편지에서 갈문을 받고서 반복하여 장송(莊誦)하니 감격스러워 눈물이 나음을 억제할 수 없었노라고 말하고 있다.<sup>44)</sup> 사실 퇴계로서는 감격할만한 일이었다. 그는 남이 청탁한 비지문자를 ‘비문불가론’을 내세워 거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허락한 문자라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에야 탈고해 온 터였다. 그토록 남에게 문자를 얻는다는 것이 지난한 일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처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는 고작 수 개월 동안 서너 차례의 편지 왕복을 통해 소원을 이루게 된 것이다. 퇴계는 이를 ‘행운’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sup>45)</sup> 그렇다고 고봉이 보낸 갈문을 아직은 각석의 대본으로 확정할 수 없었다. 몇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대목이 고봉이 찬한 갈문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퇴계는 이른바, ‘갈문품목(碣文稟目)’을 별지에 작성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제 본격적인 퇴계의 ‘갈문수사론’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왕복한 편지의 차례에 따라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42) 『고봉집』, 225쪽(장19우6-9).

43) 『令前拜復狀 奇大司成宅』, 『고봉집』, 226쪽(장21좌2-5).

44) 같은 글, 같은 곳(장22우3-7).

45) 같은 글, 같은 곳(장22우7-8): “今滉乃獲遂微願於往復數月之間, 何其爲幸之大至此也.”

## 1) 퇴계의 답서(9월 그믐)

가. 칭호의 문제: 공(公)과 선생(先生) 중에 어느 것이 더 경(輕)하고 어느 것이 더 중(重)한 칭호인가? 퇴계는 ‘선생’ 자가 더 중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고봉은 갈문에서 퇴계를 언급할 때, ‘선생’ 2자를 썼으나 퇴계의 선고에 대해서는 ‘선공(先公)’ 2자를 쓴 바 있다. 이를 퇴계는 너무나 황공스러운 일로 여겼다. 때문에 선초(鮮初) 비지수사를 원용하여 자신에게 ‘선생’ 2자를 붙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춘정 변계량(1369~1430)이 호정 하륜(1347~1416)의 선고인 부사(府使) 하윤린(河允麟)의 비명을 찬술한 바 있다. 춘정은 비명의 서두에서만 ‘좌정승진산호정선생(左政丞晉山浩亭先生)’이라 하고 호정의 선고인 부사공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 아래로는 모두 ‘정승공’이라 칭하였다. 퇴계는 춘정이 칭한 예와 같이 자신을 칭할 때는 관직명으로 하고 ‘선생’ 2자는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sup>46)</sup>

나. 칭도(稱道)의 문제: 고봉은 갈문에서 퇴계의 학덕을 높이 기린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퇴계는 너무나 장황하여 과찬에 가깝다고 여겨 정정해 주기를 요구했다. 그의 생각으로는 자신을 칭찬한 대목이 남에게 보이기엔 부끄럽고 후세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다. 때문에 고봉이 좀 더 착실(着實)한 표현으로 갈문의 내용을 다듬어 주기를 바랐다.<sup>47)</sup>

다. 갈석(碣石)과 감자(減字)의 문제: 본디 갈석이란 비석과 비교해서 규모가 작다. 이 점에 퇴계는 유의했다. 갈석의 규모 여하에 따라 갈액(碣額)에 새겨질 글자의 수효가 결정된다. 퇴계는 중간 정도의 규모를 지닌 갈석을 원한 듯하다. 그럴 경우 새길 수 있는 글자의 수효는 천 일·이 백자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고봉이 찬한 갈문의 글자 수는 천 칠백 이십 여자에 달했다. 갈석의 규모에 비해 오·육백자가 초과된 셈이다. 글자 수효가 초과되었다고 해서 전혀 각자가 불가능한

46) 『別紙 碣文稟目』, 『고봉집』, 226쪽(장22좌3-10).

47) 같은 글, 같은 책, 227쪽(장23우1-2).

것은 아니다. 새기는 글씨의 크기를 잘게(細) 만들면 된다. 하지만 돌이 잔 글씨를 이겨낼 수 있는가가 문제로 남는다. 퇴계는 구해 놓은 갈석이 예천(醴泉)에서 캐낸 것이기 때문에 돌의 바탕이 매우 거칠고 억세다고 했다. 석품(石品)이 이와 같을 경우 세각(細刻)이 곤란함은 물론이다. 세각이 어렵다면 글자의 수효를 줄이는 길 밖에 다른 방도는 찾아지지 않는다. 곧 갈문의 서문을 줄이는 문제가 제기된다. 퇴계는 감자(減字)의 방도를 고봉에게 일러 줄 필요가 있었다. 그는 갈문에서 자신의 편지글을 가감없이 그대로 인용한 부분을 줄여서 대강의 뜻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대략 사·오백자 혹은 삼·사백자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sup>48)</sup>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갈문수사가 갈석의 규모에 따른 배자(排字)의 문제로부터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그 밖의 문제: 퇴계는 자신이 찬한 행장에 나타나지 않은 몇 가지 사실을 고봉이 기억해 내어 고치고 첨가해 넣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sup>49)</sup> 왜냐하면 워낙 선고의 행적이 소략한 것을 늘 아쉽게 여겨 온 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 퇴계는 정확하게 본수(本數)를 쓰는 것이 마땅하나 성수(成數)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예를 들면, 36년을 40년으로 표기해도 좋다는 견해이다.<sup>50)</sup>

## 2) 고봉의 답서(10월 23일)

8월 이후로 공무에 바빠 여가가 생기면 앞서의 품목에 따라 개정하여 다시 여쭙겠노라 했다.<sup>51)</sup>

48) 같은 글, 같은 곳(장23우3-좌5).

49) 같은 글, 같은 곳(장23좌6-7).

50) 같은 글, 같은 곳(장23좌8-9).

51) 『先生前答上狀 李判府事宅』, 『고봉집』, 229쪽(장27우3-9).

### 3) 퇴계의 답서(11월 16일)

각석의 편의를 위해 다시 번거롭게 부탁한 것을 미안하다고 말하고, 명년 봄에 갈문을 입석(入石)하려 하니 그 이전에 정정(訂定)한 회신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sup>52)</sup>

### 4) 고봉의 답서(1570년 1월 16일)

고봉은 기사년 12월 초 6일 편지에서 시국 문제(時事)로 인하여 퇴계의 「갈문품목」에 대해 회신이 늦어지고 있는 사정을 말한 바 있다.<sup>53)</sup> 그 뒤로 한 달 열흘이 지난 시점에 와서야 비로소 갈문 정정에 치력할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된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퇴계가 감재(鑑裁)해 주기를 청했다.

가. 감자(減字)의 문제: 고봉은 퇴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약 사백 여자를 덜어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갈문의 글자 수효가 천 삼백자 밀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배각(排刻)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고봉은 퇴계에게 감자의 한계를 말하였다. 만일 더 깎아 줄인다면 갈문에서 중간에 서술한 사실들이 불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감자는 곤란하다고 보았다. 개정한 갈문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이다.<sup>54)</sup>

나. 칭호의 문제: 고봉은 ‘공’자와 ‘선생’자의 용례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일단 ‘공’자는 범칭(泛稱)하는 예가 많고 ‘선생’자는 후학이 선각(先覺)을 종사(宗師)해서 부르는 칭호라고 했다. 그러므로 자신은 문하에 있는 사람의 예에 따라 퇴계를 ‘선생’이라 칭함이 합당하다는 것이다.<sup>55)</sup> 결국 앞서 퇴계가 예로 든 변춘정의 비지수사를 수용하지 않았다.

52) 「令前拜復 奇大司成侍史」, 같은 책, 229쪽(장28좌5-7).

53) 「先生前答上狀 李判府事宅」, 같은 책, 230쪽(장29우3-좌1).

54) 「先生前上狀 判府事宅」, 같은 책, 230쪽(장30우2-4).

55) 같은 글, 같은 곳(장30좌5-10).

다. 청도의 문제: 고봉은 사의(私意)를 가지고 퇴계를 찬양하지 않았다고 했다. 시대의 공론을 정당하게 기술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의 이같은 주장은 당시 학자들이 퇴계의 문장과 학설을 전승(傳誦)하지 않는 이가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사실을 없애서 평평하게 서술하게 되면 의론(議論)과 여의(餘意)를 충분히 펴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실출어천(實出於天)’이라고 한 이 4자는 퇴계에게 욕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치기로 한다고 말했을 뿐이다.<sup>56)</sup>

#### 5) 퇴계의 답서(같은 해 1월 24일)

퇴계는 그의 손자와 잠재 김취려가 보낸 편지를 보고 선고의 갈문아 보름 정도면 개정이 끝나리라는 소식을 접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같은 희망을 고봉에게 전달하고 있다.<sup>57)</sup>

#### 6) 퇴계의 답서(1월 그믐)

퇴계는 1월 24일자 편지를 과거차 상경하는 고을 유생편에 부친 듯 하다. 유생으로 하여금 재경중이던 온계의 사위 최덕수에게 전하고, 다시 최덕수가 고봉택으로 전달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그 편지가 고봉택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구촌(龜村) 유경심(柳景深, 1516~1571)으로부터 고봉이 보낸 편지를 받게 되었다. 고봉은 이 때 다시 고치고 덜어 낸 갈문 1본을 동봉하여 부쳤던 것이다.<sup>58)</sup> 퇴계는 개정된 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가. 감자의 문제: 퇴계는 고봉이 약 사백 여자를 줄여 주어 각석의 편의를 도모해 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또한 지난 번 편지에서 자신이 요구한 감자의 정도도 그 이상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고 했

56) 같은 글, 같은 책, 231쪽(장31우1-5).

57) 「令前拜狀 奇僉知侍史」, 같은 책, 231쪽(장31좌7-10).

58) 「令前拜謝復狀 奇大司成宅」, 같은 책, 232쪽(장33우6-8).

다. 지나치게 덜어 내어 내용이 몰몰(沒沒)하게 되는 것을 자기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sup>59)</sup>

나. 칭호의 문제: 고봉의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중하게 사용해 주기를 바랐다.<sup>60)</sup>

다. 칭도의 문제: 고봉이 앞서 ‘실출어천’이라는 4자를 덜어 낸 일은 참으로 잘 되었다고 하고, 그 밖에도 과당(過當)하게 기술한 부분이 있으므로 자신으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sup>61)</sup>

#### 7) 고봉의 답서(2월 6일)

지난 번 구촌을 통해 붙인 편지와 개정갈문을 다 보았는지 그 여부를 물었다.<sup>62)</sup>

#### 8) 퇴계의 답서(3월 21일)

편지의 머리에서 지난 번 고봉이 바쁜 남행(南行)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정한 갈문을 선사하여 보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서 답서를 써서 잠재를 통해 이미 호남으로 보냈는데, 그 사이에 고봉의 2월 6일자 편지가 잠재와 이함형의 중계로 자신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sup>63)</sup> 대체로 인편을 이용하여 서한을 왕복하던 시절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다. 본론에 들어가 고봉의 개정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갈문품목」을 작성한 것이 그것이다.

가. 갈석(礪石)의 문제: 퇴계는 갈석이 마련될 무렵에 고봉이 갈문을 때에 맞게 보내 주어 다행이라고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갈석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밖으로 들어나 있지 않았던 갈라진 돌결이 석면을 때

59) 같은 글, 같은 곳(장33우8-10).

60) 같은 글, 같은 곳(장33우10-좌1).

61) 같은 글, 같은 곳(장33좌1-3).

62) 「先生前上狀 判府事宅」, 같은 책, 232쪽(장34좌9-10).

63) 「明彥令前拜復 奇大司成宅 光州」, 같은 책, 233쪽(장35좌4-장36우1).

끈하게 다듬어 갈 즈음에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갈문을 새기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시일을 조금 늦추어 가을이나 겨울쯤해서 다른 돌을 구하여 갈석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sup>64)</sup>

나. 칭도의 문제: 지난 번 고봉이 부분적으로 손질을 보긴 했으나 그 정도로는 여전히 남에게 보이기에는 어렵지만, 매번 고쳐주기를 청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므로 어찌할 수 없어 괴롭다고 했다.<sup>65)</sup>

다. 사자(寫字)의 문제: 갈석에 들어 갈 글씨를 당초에는 퇴계 스스로 쓰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을 칭도한 대목이 갈문에 들어 있기에 남에게 보이기 곤란하다고 여기던 터라, 더하여 스스로 글씨까지 쓰게 되면 더욱 남에게 비웃음을 받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하겠는데 마땅히 청할 만한 분이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sup>66)</sup>

라. 부송(付送)의 문제: 퇴계는 이 번에 정정한 갈문이 결정본이 되리라 생각하고 고봉이 붙인 편지가 혹시 잘못하여 유실될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부송의 방법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그는 회신을 서울로 보내어 최덕수나 잠재 김취려에게 부치면 중간에 유실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 했다. 이어서 지금 자신의 편지는 이함형의 처가가 순천이기 때문에 그의 종이 돌아 가는 편에 부쳐 보내노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봉의 답서만큼은 서울로 우선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왜냐하면 답서를 이함형에게 맡길 경우, 이함형의 성품이 고집스럽워 남을 위하는 데에 너무 지나친 점이 있기에, 혹시 다른 사람을 시켜 멀리 보내올까 염려되기 때문이었다.<sup>67)</sup>

마. 칭호의 문제: 퇴계는 임금 앞에서는 신하의 이름을 부르고(君前臣名),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父前子名) 예라고 하

64) 같은 글, 같은 곳(장36좌4-8).

65) 같은 글, 같은 곳(장36좌8-9).

66) 같은 글, 같은 책, 233쪽-234쪽(장36좌9-장37우1).

67) 같은 글, 같은 책, 234쪽(장37우2-6).



면서 자신에 대한 칭호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 말하면, 갈문의 서문에서 고봉이 퇴계의 글을 인용할 때 ‘황(滄)’을 ‘나(我)’라 하고, 고봉이 퇴계를 직접 거론할 때 ‘선생’이라고 한 것을 각각 ‘황’과 ‘판추공(判樞公)’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황’이라 칭할 곳은 세 군데, ‘판추공’이라 할 곳이 여섯 군데가 된다고 했다. 퇴계는 고봉의 개정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득불 이대로 갈석에 새길 것임을 미리 알렸다.<sup>68)</sup> 이는 퇴계가 선례, 즉 하호정 선고비명의 예를 얼마나 충실히 따르고자 했는지를 알게 해준다.

마. 첨삭(添削)의 문제: 갈문의 문체를 보다 간결하면서도 웅졸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퇴계는 다음과 같이 첨삭해주시기를 요구했다.<sup>69)</sup>

- 가) 서문에서 처음 인용한 퇴계의 말 중에, “既辭之不得而又乃受此贈典”에서 ‘又乃’ 2자를 뺄 것.→‘既辭之不得而受此贈典’
- 나) 같은 곳의 “尤人子隱病無窮”에서 ‘子’자 아래 ‘隱’자 위에 ‘所’자를 넣을 것.→尤人子所隱病無窮
- 다) 갈문 초본(初本)에서 감자한 부분 중 선조를 서술한 중간에 “祖諱某慷慨有大志” 밑으로 “世宗朝設寧邊鎮築藥山城公爲判官能董治底績” 20자를 첨가할 것.
- 라) “推其所自來卽”과 그 아래 문장에 또 “初非偶然而已也卽”이 있는 바, 두 개의 ‘卽’자는 서로 가까이 있어 누(累)가 되니 윗 대문의 ‘卽’자는 뺄 것.

바. 개자(改字)의 문제: 이 부분 역시 갈문수사에 대한 퇴계의 의식을 살피는 데 필요하다고 보아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 가) “後之人慕判樞公之道”에서 ‘道’자는 함부로 이 곳에 놓아서 안되므로 ‘義’자나 ‘風’자로 고칠 것.
- 나) 선고의 사실을 기술한 가운데, “爲文又不屑舉子程式以故每舉輒屈”이라고 한 대목은 행장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은 것인 바, 그

68) 같은 글 ‘품목’, 같은 곳(장37좌3-장38우4).

69) 같은 글 ‘품목’, 같은 책, 234쪽-235쪽(장38우5-장39우7).

사실이 잘못되었으니, “累學或魁而久屈”로 고칠 것.

다) 선비를 서술한 중에, 과부로 사신 햇수를 성수(成數)로 ‘四十年’이라 한 것은 좋지만 그 밑에 ‘餘’자를 두는 것은 합당치 않으니, 혹 ‘三十五年’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라) 같은 대목에서 “資給遠邇”의 ‘邇’는 사실에 비추어서도 ‘邇’자로 그냥 두는 것이 옳은 바, 이는 원근을 가리지 않고 모두 돌보아 주어 자식들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 9) 고봉의 답서(3월 11일)

정월 24일자 퇴계의 편지를 잘 받았다는 사실과 지난 번 보낸 편지를 잘 받아 보았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그리고 나서 마침 서울에 있던 처자(妻子)가 순천으로 내려 올 예정이므로 편지를 붙일 때는 최덕수와 김취려의 거처를 이용하면 좋겠다고 했다.<sup>70)</sup>

#### 10) 고봉의 답서(4월 17일)

지난 번 보낸 편지를 받아 보았는지 여부와 퇴계가 정월 그믐에 보낸 편지를 3월 16일에 받았고 또한 4월 초에 이함형으로부터 다른 편지도 받았음을 알렸다. 이어서 갈석이 갈라져 다시 돌을 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하였다. 한편 개정해 달라고 청한 것에 대해 안질이 걸려 즉시 회답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입석(入石: 갈석에 갈문을 새기는 일)이 추동(秋冬) 간으로 연기된 만큼 추후에 회답하겠노라고 했다.<sup>71)</sup>

70) 『先生前答上狀 判府事宅』, 같은 책, 235쪽(장39좌5-장40우2).

71) 『先生前答上狀 判府事宅』, 같은 책, 235쪽-236쪽(장40우8-10, 장41좌8-장42우2).

## 11) 고봉의 답서(5월 9일)

지난 번 편지를 잘 받았는지의 여부를 묻고, 갈문개정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별지에 밝혔다.

가. 칭호의 문제: 퇴계의 교시에 따라 초본대로 ‘나(我)’자를 ‘황(滄)’자로 바꾸어 직서(直書)하겠지만, ‘선생’자를 ‘판추공’으로 바꾸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고봉으로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 ‘판추공’으로 바꾸어 호칭하게 되면 원문(原文)에서 명의(命意)하고 조사(措辭)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주자대전에 실린 「유십구부군묘지 劉十九府君墓誌」에서도 ‘선생’이라 칭한 예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근세의 비문수사, 즉 앞서 퇴계가 원용한 「하호정 선고비문」의 예를 취할 것이 못된다는 것이다. 대현의 모범(模範), 곧 주자가 찬한 명문의 수사를 법삼는 일이 보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셋째, 퇴계가 거론한 ‘부전자명(父前子名)’의 논법에 대해서도 긍정하지 않았는 바, 구양수가 찬한 묘표의 예를 인용하여 ‘수시칭위(隨時稱謂; 때에 따라 칭호를 부르는 것)’는 실례(失禮)가 아니라고 하였다.<sup>72)</sup>

나. 침삭의 문제: 퇴계가 앞서의 편지에서 침삭을 요구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다. ‘又乃’2자 중에 ‘乃’자는 빼도 되나 ‘又’자는 뺄 수 없다고 했다.<sup>73)</sup> 왜냐하면, 퇴계의 요구대로 “辭之不得而受此贈典”이라 고치면, 중간(曲折)의 곡절(曲折)을 알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증전(贈典)’을 사양했으나 허락을 얻지 못해 받았다는 뜻으로 곡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 개자의 문제<sup>74)</sup>

가) “或魁而久屈”은 말이 전아하지 못할 뿐더러 자잘한 데 가까우니, “累擧而累屈”로 바꾸면 그 의미가 저절로 드러날 것이라고

72) 「先生前拜上狀 判府事宅」, 같은 책, 236쪽-237쪽(장42좌9-장43좌5).

73) 같은 글, 같은 책, 237쪽(장43좌6-장44우1).

74) 같은 글, 같은 곳(장44우2-8).

해서 퇴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나) “道”자는 이미 고인들도 많이 쓴 바 있으므로 고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한 ‘義’자는 ‘道’자와 별로 차이가 없고, ‘風’자를 쓰면 위 아래 대문의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다) “卽”자는 중첩된 것이 사실이나 주자도 이러한 예가 많았고 또 위의 ‘卽’자를 제거하면 어의(語意)가 불쾌하게 되므로 그냥 두는게 좋다고 했다. 그러나 제거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 만큼, 퇴계가 알아서 그 여부를 결정하라고 말했다.

## 12) 퇴계의 편지(7월 12일)

서두에서 퇴계는 4월 17일자와 5월 7일자 고봉의 편지를 여름 철에 받아 보았노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말미에 와서는 지난 번 선고갈문 개정건에 대해 회신해 온 고봉의 견해를 모두 좇겠다는 의사를 밝혔다.<sup>75)</sup> 이는 더 이상 갈문과 관련한 서한왕복이 차후로는 없을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퇴계는 이렇듯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도록 고봉이 배려해 준 데 대해 충심으로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 보였다. 끝으로 그는 농사일이 마무리 되면 예천에서 다른 돌을 구하여 갈문을 입석하겠다는 계획을 덧붙이고 있다.<sup>76)</sup> 우리는 지금까지 한 편의 갈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찬술되는지에 대해 소상히 살펴 보았다. 퇴계의 선고갈문의 확정에 소요된 기간을 계산해 보면, 만 1년 1개월이 걸린 셈이다. 1569년 6월 7일 퇴계의 청탁으로 부터 1570년 7월 12일까지 13통의 편지가 왕복되었다. 그런데 왕복 서한의 주된 내용이 ‘수사’와 관련되고 있음은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는 그 만큼 퇴계가 갈문수사를 중시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75) 『明彦令前拜復 奇大司成宅 光州』, 같은 책, 238쪽(장45좌8-9).

76) 같은 글, 같은 곳(장45좌9-장46우2).

## V. 郡守 宋世忠 礪文事

가평군수를 지낸 바 있는 송세충(1468~1527)은 퇴계와 동년급제한 추파(楸坡) 송기수(宋麒壽, 1506~1581)의 선고이다. 퇴계는 추파로부터 1552년 갈문 찬술을 청탁 받는다. 청탁을 받은 퇴계는 자신의 글 솜씨가 고인들에 견주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갈문찬술이 곤란하다고 사양한다. 그렇지만 추파의 정성이 간절했는지라 퇴계로서도 갈문사에 수수방관할 수 만은 없었다. 그래서 퇴계는 갈문찬술은 어렵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갈문을 받아오면 갈석에 글씨 쓰는 일(寫字事)만은 거들어 줄 수 있다고 했다.<sup>77)</sup> 추파는 그 후로 다른 사람에게 갈문을 청한 것 같지 않은 까닭에, 초고본을 가지고 손질을 더하여 퇴계에게 글씨를 받으려 한 듯하다. 퇴계는 추파에게 보낸 편지의 별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갈문 사자건(寫字件)에 대해 논하고 있다.

대저 석제(石制)에는 법도가 있습니다. 글이 많으면 글씨가 섬세해지고 글씨가 섬세해지면 깊이 새기기가 어렵지요. 그리하여 쉽게 닳아 없어지기 때문에 묘갈문자는 극도로 간절(簡節)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선공의 갈문은 글자가 많아 새기기에 곤란합니다.<sup>78)</sup>

요컨대 전후문자(傳後文字)는 내구성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이다. 이를 위해 퇴계는 글씨의 크기에 유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글씨의 일정한 크기를 보장하는 길은 간절한 문장의 추구에 있다. 간절한 갈문수사는 또한 감자(減字)의 과정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퇴계가 위의 갈문에 대해 요구한 간절화 방안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sup>79)</sup>

77) 「答宋台叟」, 전서1, 270쪽(속내집, 권9, 장32좌3-장33좌5).

78) 「答宋台叟別紙」, 같은 책, 271쪽(장34우4-6): “大抵石制有度, 文多卽字細, 字細卽難深刻, 易至漫滅. 故文字極要簡節, 而先公礪文, 猶恐字多難刻也.”

79) 같은 글, 같은 곳(장34우6-좌4).

“當高麗恭愍朝” → 當麗季  
 “府院君諡文康公” → 府院君  
 “轉刑曹佐郎奉常主簿禮曹佐郎” → 轉刑禮曹佐郎  
 “慶尙都事兼史職” → 慶尙都事  
 “忠淸道竣事” → 忠淸道  
 “時母夫人年近八十上言陳乞留爲” → 以母老留爲  
 “噫”자 밑으로 명문(銘文)에 이르기까지의 글자를 모두 제거할 것.

위의 예에서 엿볼 수 있듯이 퇴계는 “비갈(碑碣)에 있어 역관(歷官) 사실이 많을 때는 일일이 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sup>80)</sup> 또한 예문의 네번째 경우는, “도사(都事)가 사관직을 겸대(兼帶)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뒷부분은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으로 감자가 이루어 지고 있다.<sup>81)</sup> 여섯번째의 예는, “‘上言陳乞’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 있다.”는 판단에 의거해 대폭 축약되고 있다.<sup>82)</sup> 가능하면, 본래 전달하고자 하는 뜻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간결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칙이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퇴계가 맡은 것은 글씨를 써주는 일이었다. 비록 위와 같이 갈문의 글자수를 덜어내는 작업을 시도하긴 했지만 본인으로서의 달가운 일이 못되었다. 왜냐하면 이같은 자신의 감자행위가 남에게 알려지면 비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본래의 임무로 돌아와 석면에 글씨 쓰는 요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자(大字)는 명한 바 대로 써 올립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혹시 너무 크게 쓴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또 중자(中字)도 만들어 함께 올립니다. 골라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양면(陽面)에는 이미 표제(標題)가 있으니 음면(陰面)에 굳이 꼭 표제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리라 봅니다.<sup>83)</sup>

80) 같은 글, 같은 곳, ‘세주’: “碑碣歷官之多者, 不必一一盡錄.”

81) 같은 글, 같은 곳, ‘세주’: “都事兼帶史常事, 不書無妨.”

82) 같은 글, 같은 곳, ‘세주’: “上言陳乞之意在其中.”

글씨쓰는 요령에 있어서도 퇴계의 생각은 항상 축약과 간절을 지향하고 있다. 글자의 규모는 너무 크지 않게 하고 동일한 내용은 거듭 쓰지 않는다는 원칙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글씨 쓰는 일이란 단순작업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한정된 석면에 글자의 내구성을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갈문의 내용을 온전히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퇴계가 다시 갈문의 내용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명문(銘文)을 제거하면 끝맺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명문은 남겨두기로 합니다. ‘贈’자는 당초에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망령되어 써서 올렸습니다. 잘못되었음을 알고 나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거듭해서 ‘某邑某山’에 장사지냈다고 말하였으니 과연 교시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公墓之下’라고만 말하면 또한 너무 무단(無端)합니다. 그래서 ‘邑’은 제거하고 ‘山’만 남겨 두기로 합니다. ‘蘭玉’을 거듭 기록한 것도 역시 지나치게 번거로운 감이 있으니 깨우쳐 주신 바와 같습니다. 대략 서술하고 끝맺자니 당부(當否)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끝의 두 줄은 글자 수가 많지 않아 공할(空豁)함이 많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첫번째 줄의 ‘太宗’자는 두번째 줄 위로 올리고 그 아래는 이로써 추이(推移)하여 줄을 만들어 가면 맨 끝 한 줄 위에 마땅히 네 다섯자를 쓰고 나아 끝날 것입니다. 따라서 ‘皇明’ 2자를 제거하고 ‘嘉靖’이하 ‘歲月’을 쓰면 상하 양단(兩端)의 소밀(疎密)함이 균제(均齊)해질 것입니다.<sup>84)</sup>

퇴계는 석면에 배자(排字)할 때 상당히 안정감있는 공간 활용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일찍이 갈문의 문체가 간결함을 위주로 한다고 말한 바 있다.<sup>85)</sup> 이는 고문(古文)에서 요구하는 서사원리를 퇴계가 어느 정도 갈문찬술에 적용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간단히 갈문의 문학적성으로 확대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기는 하나, 여하튼 고문정신이 비지서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그가 동의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83) 같은 글, 같은 곳(장34좌9-장35우1).

84) 같은 글, 같은 곳(장35우1-9).

85) 拙稿: 「朝鮮朝 士大夫層의 碑誌文字論」을 참조.

그와 더불어 갈문을 써서 석면에 새겨 넣을 때, 갈석의 공간처리에도 일정한 미학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퇴계의 표현을 빌어 말하면 ‘균제’의 아름다움, 곧 ‘균제미(均齊美)’의 추구로 요약된다. 비록 갈문이 의례(儀禮)적인 문자이기는 하지만 역시 문학과 서법, 그리고 조각이 하나로 통일되어야만 완성을 볼 수 있다. 마치 서로 분야가 다른 장인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예술적 과정이라고도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술적 과정은 당연히 예술적 안목을 요구하게 되고, 예술적 안목은 필연코 일정한 미의식을 토대로 한다. 퇴계의 갈문수사나 석면배자에서도 이 점은 동일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가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미학적 관점이 그대로 그의 비지문자론에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계의 갈문수사는 「별지(別紙)」의 후반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초에 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극도로 재단하고 감자하고자 마음을 썼습니다. 생각건대, 가부(可否)를 따진 것이 없지 않았으나 보내 오신 편지의 말씀은 한결같이 깊이 근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忠淸’은 오늘날 비록 ‘淸洪’이라 하지만 마땅히 그가 명을 받았을 때의 도명(道名)에 따르는 것이 아마도 온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일은 기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옛날의 묘지나 묘갈에서도 봉사(奉使)하여 출입한 곳을 기록한 예가 있으니 그대로 두어도 해로우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써 두기로 합니다. ‘執喪’ 아래에 절거(節去)해버린 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삼가 참작하였습니다. ‘挾憾’자는 너무 무거운 듯하니 고쳐서 ‘由是’ 2자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職銜’을 병서(并書)해야 할 지 줄을 나누어야 할 지(分行)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꼭 합당할까요? 그래서 두 가지 모양을 모두 써서 올립니다. 공께서 알아 처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붙인 계지(界紙) 속에 부인 묘에 새긴 대자(大字) 계양(界樣)이 있는 즉, 이미 그대로 썼습니다. 그 옆에 또한 중자(中字) 계양으로 만든 것은 모두 24자인데, 보이지 않지만 써야 할 글자의 뜻으로 보면 반드시 부군(府君) 갈액(碣額)의 표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



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표제에 무슨 벼슬을 쓰는 것이 마땅한지? 잠시 그대로 두고 후일의 교시를 따르도록 합니다.<sup>86)</sup>

인용문을 통해서 우리는 퇴계가 ‘간엄(簡嚴)’한 비지수사의 일반 원칙을 충실히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명의 용사에 있어 ‘거실직서(擧實直書)’하고자 애쓴 흔적이 돋보인다. 피전자의 시대에 통용하던 지명을 그대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이 그러하다. 또한 그는 비지수사의 고례(古例)를 중시하고 있다. 되도록 새로운 서사방식이나 각자(刻字)방식을 모색하려 하지 않는다. 고인들이 가던 길이 앞에 있기에 충실히 옛 길을 따르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여긴 때문이다.

갈문의 글씨와 관련하여 추파 송기수와 1553년에도 왕복한 서한이 남아 있다.<sup>87)</sup> 그러나 마무리 단계에서 오갈 수 있는 덕담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갈문수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어찌 되었든 군수 송세충의 갈문은 퇴계의 찬술로 「도산전서」에 수록되어 있다.<sup>88)</sup> 글씨 쓰는 일로 갈문사에 관여하기 시작하여 중국에 가서는 수사를 거듭하여 갈문의 찬술자가 되버린 것이다. 한 건의 갈문에서 찬술(撰述)과 사자(寫字)를 한 사람이 겸하는 예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퇴계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한 바 있다.<sup>89)</sup> 그러나 결과적으로 스스로 자신이 정한 원칙을 깨뜨리고 만 셈이 되었다. 그는 원칙만을 고수하는 고지식한 학자가 아니었다. 때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줄 아는 유연한 인간미를 보여 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 점은 퇴계라는 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할 때,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따라서 퇴계의 갈문수사론도 같은 맥락에서 분석되어지고 평가되어야

86) 「答宋台叟別紙」, 전서1, 271쪽(장35우10-좌10).

87) 「答宋台叟」, 같은 책, 272쪽(장36우2-좌6).

88) 「加平郡守宋公墓碣銘」, 전서3, 338쪽-339쪽(속내집, 권63, 장35좌1-장37좌1).

89) 拙稿: 「退溪의 碑文不作論」을 참조.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 VI. 마무리

우리는 본론을 통해 퇴계의 갈문수사에 대해 살펴 보았다. 퇴계의 ‘갈문수사론’은 많은 부면 그의 ‘비문부작론’과 상충하고 있다. 이는 퇴계가 비문에 대해서는 인색한 태도를 견지한 반면 갈문에 대해서는 관용적 입장을 취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정했던 비지찬술의 원칙들을 종종 사상시켜갈 수 있었다.

갈문수사에서 그가 중시한 대목은 ‘국축’함이 제거된 ‘간엄’함의 추구이다. 비문보다 규모가 작기에 각자의 수효가 적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갈문의 한계이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해가는 길이 바로 ‘간결’함의 추구였는 바, 이 역시 ‘엄격한 법도’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간엄(簡嚴)’하다는 표현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간엄’을 추구하다 보면 웅색한 문장을 생산하기 쉽다. 때문에 퇴계는 간결하면서도 웅색하지 않은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간결하면서도 웅색하지 않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퇴계의 고민은 이로부터 싹트기 시작하여 ‘수사(修辭)’에 착목하기에 이른 것이다. 퇴계가 말하는 ‘수사’란 오늘날 서양에서 말하는 ‘레토릭(Rhetoric)’과는 그 의미내용을 달리한다. 용어의 시원부터가 다를 뿐 아니라 사용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서양의 ‘수사학’은 일종의 웅변술에서 그 출발을 보았기에 ‘말하는 방식’에 치우친 감이 있다. 그러나 퇴계가 쓰고 있는 ‘수사’는 서면어(書面語; 문자를 통한 의사 표현)에 한정하고 있어 보인다. 본디 유가에서는 일정한 덕의 실상이 없으면서 말만 잘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늘 ‘교언(巧言)’은 ‘영색(令色)’과 더불어 최고의 가치인 ‘인(仁)’을 체인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금기의 대상이었다. 도리어 ‘말에는 능하지 못한

(訥於言) 사람이 보다 진실된 인간으로 간주되는 예가 많았던 것이다. 이렇듯 ‘수사’란 기능화한 솜씨의 차원으로 이해되었다면 종래의 유가들이 이를 정당하게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수사’는 내면의 사상을 진실하고 효과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었기에 퇴계도 이를 강조할 수 있었다.

퇴계가 생각한 갈문수사 방식들이 ‘문장론’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다면적인 검토들이 수행되어진 후에 논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전적인 문장론, 특히 당송팔가의 출현후에 전개된 ‘고문론’에 바탕하여 퇴계의 수사론을 고찰해 볼 수는 있다. 비교적 그는 고례(古例)를 중시하고 따르고자 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주자류의 문장 스타일, 즉 어록체가 섞인 문장에는 관심이 적었다. 고전 산문의 수사원리에 집착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고문진보』를 수 백번씩 익히고 그로부터 일정한 창작원칙을 터득하려 했던 까닭도 이와 연관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학자였던 그로서는 ‘후세에 남기고 가야 할 문자(傳後文字)’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었다. 예컨대, ‘입언수후(立言垂後)’의 정신이 동류 유학자들 보다도 강했다. 그러나 후세에 남길 만한 사상적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 모두가 전해질 수 있다고는 보지 않았다. ‘문자’를 세우는 일은 그만큼, 일정한 문장수련이 갖추어져 있어야 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퇴계의 ‘수사론’이 그 성립을 보게 된 것이다. 더구나 비지문자는 ‘전후(傳後)’할 만한 대상(인물)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에 합당한 행적이 있어야 하며, 또 이를 문자로 세워 전달해 줄 수 있는 역량있는 찬술자가 요구된다. 따라서 퇴계가 이 비지수사에 상당한 관심과 고민을 보인 것도 그의 ‘입언수후’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였다.